주가	환율	금리
+19.37	+1.40	-0.08
1,399.44 (코스피지수)	936.60원 (원/달러)	4.70% (3년만기 국고채)

코스닥지수	602.80	(+6.19)
다우(8일)	12,176.54	(+19.77)
나스닥(8일)	2,384.94	(+9.06)
닛케이	16,198.57	(-17.17)
엔-달러 환율(도쿄 17:00기준)	117.79엔	(-0.14)
유로 달러 환율	1.2763달러	(-0.16)
3년만기 회사채	5.02%	(-0.07)
콜금리	4.47%	(-0.01)

금호석화 中에 합성수지공장

2008년 가동…연 13만t 생산

금호석유화학(대표·기옥)이 중국 난징에 첫 해외 생산기지를 설립한다. 금호석유화학은 9일 중국 난징시 남경화학공업원(NCIP) 부지내에서 박찬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화학부문 회장 등 한·중 인사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합성수지원료 공장 기공식을 가졌다.

이번에 설립되는 남경금포금호화공유한공사(南京金浦錦湖化工有限公司)는 금호석유화학과 중국 난징시의 대표적인 민영기업인 강소금포집단이 50 : 50의 지분으로 5천만 달러씩 1억 달러를 투자된다. 6만평 부지에 2008년 가동을 목표로 건설될 예정이다.

생산품목은 합성수지인 프로필렌 옥사이드, 폴리프로필렌 글리콜 등이며 각각 연간 8만t, 5만t을 생산하며 향후 각각 20만t까지 생산능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금호석유화학은 현재 울산공장에서 폴리프로필렌 글리콜 연간 4만5천t을 생산하고 있으며 국내업체 폴리프로필렌 글리콜부문에서는 한국포리올·SKC에 이어 세번째 생산규모를 점하고 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모아 엘가' 아파트 128세대 분양

덕평산업개발 광주 남구에…명문학군 강점

덕평산업개발은 광주시 남구 봉선동에서 '모아 엘가'아파트 128세대를 분양한다.

봉선동 '엘가'는 33평형 76세대, 45평형 52세대 규모로, 단지 인근에 초등학교(불로, 조봉, 봉선, 유안), 중학교(문성, 주월, 봉선, 동아여중), 고등학교(문성, 동아여고, 인성, 대광여고, 과학, 동성, 삼육) 등의 명문학군이 있다.

또 제2순환도로, 봉선로, 대남로 등과의 접근성이 좋고, 2007년 8월 오픈 예정인 이마트와 함께 수영장과 도서관 등이 갖춰진 남구종합문화예술회관이 단지 인근에 있다. 모델하우스는 오는 17일께 개관한다. 문의 062-523-2007.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광주·전남지역 商議, 광주은행 인수 가능할까

인수자금 모금 등 구체적 로드맵 없어

정부 민영화 의지 불투명 … 여론 회의적

주주 공개 밝힌 경남銀 인수위 행보와 대조

마형렬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9일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은행 민영화 추진 관련 공동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홍균 광주상의 부회장, 송영수 순천·광양상의 회장, 주영순 목포상의 회장, 마형렬 회장, 김광현 여수상의 회장, 문덕형 광주상의 상근부회장.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광주상공회의소를 비롯한 지역상공인들이 광주은행 인수를 위해 재시동을 걸었으나, 정부의 민영화 의지가 불투명한데다 인수자금 모금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로드맵조차 준비되지 않아 '과연 인수의지가 있는가' 하는 회의적인 여론이 높다.

◇인수위 재가동=마형렬 광주상의 회장 등 광주·전남지역 4개 상의회장은 9일 광주상의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은행 민영화 추진관련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광주은행이 민영화될 경우 조기에 공적자금 회수가 가능하고, 금융의 중앙집중화 방지 및 지방분권 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면서 "향후 소유와 경영을 분리, 전문경영인에 자율경영을 보장하면 초우량 은행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광주은행인수추진위원회는 이달말까지 우리금융지주(주) 및 정부기관 등을 설득한 뒤 광주은행 실사를 거쳐 매각 1차 시한인 내년 3월 27일 이전까지 인수작업을 마무리한다는 입장이다.

◇인수 가능할까=광주은행 인수까지는 적지않은 변수가 도사리고 있어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무엇보다 정부의 의지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일부 지분을 2차 매각시한인 2008년 3월 이전에 블록세일이나 공모를 통해 단계적으로 매각할 예정"이라면서도 "공적자금 회수 및 금융시장 안정극대화 등에 대한 검토없이 지방은행이니까 지역자본이 인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특히 금융자본의 소유지분을 제한하는 금산법(금융산업구조개선법)이나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막고 있는 출총제에다 론스타 사태의 '후(後)폭풍'으로 우리금융지주의 민영화 작업이 올스톱된 분위기도 인수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또 광주은행의 자산가치를 8천억~1조원으로 고려했을 때 지역내에서 최대 6천억원 규모의 인수자금을 충당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견해가 많다.

인수위 활동 역시 지지부진하다. 광주·전남지역 상의회장 등 22명은 지난해 11월 인수위를 결성했으나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얻지못해 1년여 동안 활동을 하지 못했다. 이번 공동선언도 오는 15일께 참여주주를 공개하겠다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밝힌 경남은행 인수위를 허겁지겁 뒤쫓는 분위기에서 나온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광주은행은 경영부실로 인해 2002년 4천417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이후 올 6월말 현재 총자산 12조3천억원, 당기순이익 750억원의 우량은행으로 거듭났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광주·전남 신용카드 이용객

신용구매는 늘고 현금서비스 줄어

올해 상반기중 광주·전남지역내 신용카드 이용액은 별로 늘지 않았으나 발급매수는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용구매 이용액은 증가한 반면 현금서비스 이용액은 감소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9일 발표한 '2006년 상반기중 신용카드 이용현황'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의 신용카드 총발급매수는 502만9천매로 지난해 말에 비해 23만매(4.3%)가 증가했다.

그러나 신용카드 이용액은 총 5조6천358억원으로 지난해 하반기 사용액(5조6천167억원)에 비해 0.3% 증가하는데 그쳤다.

상반기 이용액중 신용구매로 사용한 액수는 3조7천658억원으로 6개월전에 비해 1천467억원(4.1%)이 늘었으나, 현금서비스 이용액은 1조8천700억원으로 1천276억원(6.4%)이 줄었다.

이에따라 전체 신용카드 이용액에서 신용구매가 차지하는 비중도 66.8%로 6개월전(64.4%)에 비해 2.8%포인트 상승했다.

신용카드 연체율은 3.4%로 전년말(3.7%)보다 0.3%포인트 하락해 2003년말(15.0%)이후 개선추세가 지속됐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한국 청소년 56%

"저축 전혀 안해"

한국 청소년들의 저축습관이 홍콩이나 대만 청소년들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씨티그룹은 9일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제3회 아태지역 금융교육회의'를 개최하고 한국과 대만, 홍콩 등 3개국 청소년(15~18세) 9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국 청소년들은 56%가 "매주 전혀 저축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반면 홍콩과 대만 청소년들은 80% 이상이 "매주 저축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예산계획에 있어서도 한국 청소년들의 절반 이상이 단순히 본인 스타일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잘못된 저축습관으로 인해 한국 청소년들(39%)이 대만(27%)이나 홍콩(27%) 청소년에 비해 더 많이 부모와의 갈등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교육에 있어서는 3개국 모두 60% 이상이 돈관리에 대해 더 배우고 싶다고 응답해 청소년 금융교육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영·호남 소득격차 더 커졌다

외환위기 이후… 호남권 인구 감소 등 지역불균형 가속

외환위기 이후 호남과 영남의 소득증가율이 확대되는 등 지역경제의 양극화 현상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호남권은 인구도 다른 지역에 비해 더 큰 폭으로 줄어들어 지역불균형이 가속화 될 것으로 우려된다.

9일 한국은행이 전국을 9개 지역으로 나눠 발표한 '인구이동으로 본 우리나라 지역경제의 동태적 특징'에 따르면 1997~2004년 지역경제별 1인당 소득 순위 증가율은 부산·울산·경남이 4.09%로 1위를 차지했고 대구·경북이 3.93%로 뒤를 이었다.

그러나 광주·전남은 1.93%, 전북은 2.61%, 제주와 강원은 각각 1.68%와 1.56%로 전국 평균 3%를 밑돌았다.

2004년 1인당 소득금액이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로 8위에서 한 계단 더 밀렸고, 강원은 5위에서 7위로 떨어졌다. 광주·전남은 6위로 제자리걸음이었다.

전국 평균을 밑도는 이들 저소득 지역은 인구증가율도 낮아 광주·전남은 0.3%, 전북은 0.6% 감소했고 강원은 0.02% 줄었다.

한국은행은 "경제의 양극화 현상이 지역경제의 격차 확대로 옮겨가고 있다"며 "기업들이 산업구조와 지역간 비교우위 변화에 원활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축소하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전남대 창업벤처 '프로셀' 29억 유치

바이오기업 굿센 1차투자

신약 후보물질 개발 박차

인간배아 줄기세포 연구 전문업체인 전남대 의대 내 벤처회사 프로셀㈜(대표 조대웅 교수·사진)이 코스닥 상장 바이오 기업인 굿센(대표 최민철)으로부터 1차 투자분 29억원을 유치했다고 9일 밝혔다.

프로셀㈜은 조 교수가 설립한 벤처회사로 조 교수가 개발한 다수의 신약 후보물질에 대한 독성검사와 새로운 개념의 단백질 치료제 개발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특히 프로셀이 보유하고 있는 '거대분자 세포 내 전송기술(MITT)'은 이미 기능이 입증된 생체 내 단백질을 이용해 독성이 낮고 약효가 월등하며 저비용으로 단기간에 신약 후보물질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따라 프로셀의 연구에 대한 지식재산권 권리화 및 임상실험 등 단백질 치료제 개발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 교수는 단백질 치료제 개발 분야에서 최고 권위자로 손꼽히는 의생명 과학자로, 미국 밴더빌트의대에서 재직하다 올해 초 전남대 의대에 특채 교수로 초빙됐다.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